

청순 벗고 카리스마 폭발



'내 남편과 결혼해줘' 박민영



'밤에 피는 꽃' 이하니



'끝내주는 해결사' 이지아



베이비몬스터, 제2 블랙핑크 되나

신곡 '스턱 인 더 미들'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비' 1위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사진)의 신곡 '스턱 인 더 미들' (Stuck In The Middle)이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1위에 올랐다.

3일 유튜브가 공개한 지난 1일자 최신 차트에 따르면 이 뮤직비디오는 주류 팝 시장인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두루 인기를 누리며 차트 정상에 올랐다.

소속사 YG는 "특별한 퍼포먼스 없이 오롯이 보컬로만 완성된 발라드곡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음악을 향한 전 세계 팬들의 남다른 기대감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턱 인 더 미들' 뮤직비디오는 공개 이후 하루가 지나지 않아 1000만뷰를 기록한 데 이어 '24시간 내 가장 많이 본 동영상' 1위에도 올랐다.

'스턱 인 더 미들' 뮤직비디오는 멤버들의 드레스 차림과 한 편의 판타지 동화를 떠올리게 하는 영상미로 호평받았다.

이 노래는 4월 발매 예정인 첫 번째 미니앨범의 선공개곡으로,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에 멤버들의 유려한 보컬이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드라마 여주 새 흥행공식

신부보다 화려한 장신구에 웨딩드레스보다 세 하얀 수트 셋업을 입고 신부대기실에 나타난 여자 주인공 강지원(박민영 분).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둔 신부의 두 눈을 똑똑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 "축하해, 내가 버린 스레기 알뜰살뜰 주운 거."

힘들고, 억울해도 묵묵하게 참고 견디는 '착한' 여자 주인공들은 이제 구식이다. 4일 방송가에 따르면 고통받은 만큼 속 시원하게 되갚아주는 성격의 여자 주인공들이 안방극장을 휘어잡고 있다.

현재 방송 중인 tvN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남편과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주인공 강지원의 복수극이다.

10년 전 과거로 돌아가 인생을 바로잡을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강지원은 참고 견디기만 했던 과거를 후회하며 크게 각성한다.

웃는 얼굴로 자신을 이용하던 '절친' 정수민(송하윤),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었던 남편 박민환(이이경), 며느리를 시녀 취급하던 시어머니 등에게 시원스럽게 되갚아주기 시작하고, 점점 주체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며 행복을 찾아 나선다.

첫 회 시청률 5.2%로 출발한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사이다 복수'로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매주 자체 최고 시청률 기록을 거듭 갈아치우고 있다. 3회 만에 작년 tvN 월화드라마 최고 시청률(5.9%)을 훌쩍 뛰어넘었고, 10회 만에 시청률 10%대를 돌파했다.

억울해도 견디는 청순가련 구식 받은만큼 갚아주는 드라마 인기 능동적인 여성 그려 통쾌함 선사 '내 남편과...' 등 시청률 고공행진

MBC 금토드라마 '밤에 피는 꽃'을 이끄는 히어로 조여화(이하니)도 '걸크러시' 매력을 뽐내내는 캐릭터다. 낮에는 조신한 수절과부인 척 농성을 떨다가도, 해가 저물면 검은 복면을 쓰고 답을 넘어 도우미 필요한 백성들을 돕는다.

조여화는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는 게 미덕이자 온전한 삶이라 여겼던 시대에 태어났다. 남편을 여인 사대부집 딸며느리에게 대문밖 세상은 안감 생심이다. 죽은 지아비를 위해 곡을 하거나, 내훈과 삼강행실도를 필사하면서 그림처럼 살아있었다고 요구받는다. 그러나 주체적인 삶에 대한 욕망과 불타오르는 정의감에 조여화는 죽을 때 죽더라도 할 일은 해야 온전한 삶이라고 믿는다. 복면으로 신분을 가린 채 밤바람을 가르며 백성을 구하는 영웅으로 이슬이슬한 이중생활을 이어간다.

첫 회 시청률 7.9%로 출발한 '밤에 피는 꽃'은 3회 만에 시청률(10.8%)이 10%대를 돌파했고, 7회 시청률은 13.1%로 집계돼 작년 MBC 드라마 최고 시청률('연인'의 12.9%)도 뛰어넘었다.

지난달 31일 첫 방송을 시작한 JTBC 드라마 '끝내주는 해결사'도 시청률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아직 2회까지만 방송됐지만, 첫 회에서 3.3%였던 시청률이 2회에선 4.9%로 뛰었다.

'끝내주는 해결사'의 주인공 김사라(이지아)는 '걸크러시', '카리스마', '사이다 전문'으로 소개된다. 눈치 보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돌직구로 정면 돌파하는 '이혼 해결사'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며느리이자 최고의 이혼 변호사로 활약하던 김사라는 위장이혼을 당하고, 아이 양육권을 빼앗기고, 앞선 데 맞춘 격으로 친정어머니까지 잃게 되면서 새로운 욕망을 품는다. 자신을 배신한 남편을 감옥에 보내거나 그의 재산을 탕진하는 것이다.

남편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까지 잃고 감옥에 갔다가 출소한 김사라는 이혼 해결사로 복귀한다. 이혼 문제로 골머리 앓는 이들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 시원한 복수를 하고, 이혼합의서에 대신 사인을 받아내 주는 게 그의 역할이다.

이지아는 제작발표회에서 "이번 복수는 좀 더 속이 시원하고 화끈하다"며 "사라가 역경을 헤쳐 나가는 방법이 통쾌하고 기발하게 느껴졌다"고 출연을 결심한 계기를 밝혔다. 그러면서 "히어로물의 주인공이 돼 고난에 빠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아주 다 아작을 내는 시원한 복수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오징어게임' 스틸컷부터 흥미진진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 시즌2의 스틸컷(사진) 4장을 지난 2일 사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최후의 1인'으로 살아남은 기훈(이정재 분)이 자신을 처음 게임에 초대 한 의문의 남성(공유)과 다시 마주앉은 모습이 담겼다.

시즌1 최종회에서 마스쿠를 벗고 정체를 공개한 프론트맨 이병헌과 시즌2에 새로 등장하는 박규영의 모습도 눈길을 끈다.

'오징어 게임' 시즌1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신드롬을 일으켰다. 황동혁 감독은 이 드라마로 에미상 감독상을 받았고, 배우 이정재는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올해 중 공개 예정인 시즌2는 미국행을 포기한



기훈이 자신만의 목적을 품은 채 다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다.

배우 이정재, 이병헌, 위하준, 공유 등은 시즌1에 이어 시즌2에도 출연하고, 임시완, 강하늘, 박성훈, 양동근, 조유리, 이진욱, 노재원, 최승현(탑), 박규영, 원지안 등이 새로 합류한다.

/연합뉴스

신탁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탁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보편적복지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 복권위원회 | 사랑의열매